

청와대 방문 미끼로… 상품판매 극성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최근 다시 활기
방문판매 소비자상담 지난 2년간 305건 접수

박상래 기자

psl@sjbnews.com

지난 10일부터 청와대 개방 관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청와대 개방 관람을 미끼로 매트 및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주 서노송동 오모씨(70대 여성)는 아는 지인을 통해 하루 여행비 1만 5,000원만 지불하면 청와대 관람 방문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당일 여행을 신청했다. 하지만 오전 6시 30분 출발한 관광버스는 청와대가 있는 서울로 출발하지 않고, 충청도 한적한 농장에 도착해 매트와 식품 등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오전 내내 흥보관에서 시간을 보낸 관람객들은 점심 식사 후 서울로 출발해 3시 30분쯤 청와대에 도착했고, 수박 걸壑기 식의 청와대 외관만 둘러보고 전주에 도착한 시간이 밤 9시 30분이었다. 알고 보니 청와대 관람 방문이 목적이 아닌, 고가의 매트와 베

전북교사노조, 교육감 후보들에게 5대 공약 제안

전북교사노조는 최근 교육감 후보들에게 5대 공약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5대 공약은 △교사의 행정업무를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직종별 업무 표준을 마련하는 '교행완박'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학생생활지도 조례' 설립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업지원을 하기 위한 '수업지원 교사제 확대' △자율학교 50% 확대' △교사 전문성 신장과 교사 교육권 보호활동을 위한 '교원노조 보조금 조례 제정' 등이다.

이에 대해 김윤태, 서거석, 천호성 세 후보는 '교행완박', '학생생활지도 조례', '수업지원 교사제 확대', '자율학교 50% 확대'에는 모두 찬성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 '교원노조 보조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천호성, 김윤태 후보가 찬성을, 서거석 후보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선거 이후에 해당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북의 교사들이 수업권을 보장받고 교육 전문가로서 인정받아 수업, 생활지도, 학생상담에서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현철 기자



김남규 시의장, 한복산업 지역 연계 계기 마련

전주-경북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연계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이 한국한복진흥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을 방문해 한복산업 지역연계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 의장과 한국전통문화전당 관계자들은 26일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한국한복진흥원과 안동시 소재 한국국학진흥원을 연달아방

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주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에 따른 유관기관 연계와 전통문화 관련 논의등이 이뤄졌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경상북도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조성 대상지'로 선정돼 한국전통문화전당내 266평의 공간을 창작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복정권 기자

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흥보관을 가는 것 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26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청와대 개방 관람 참가자 모집은, 흥보 유인물을 복지관 및 경로당 등 단체 인원모집이 가능한 단체나 시설에 우편 발송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형태를 보인다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한 긴급 소비자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후 2년간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확인해본 결과, 2018년~2019년도에는 853건,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305건이 접수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 이전보다 방문판매 상담 건수가 -180%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매우 취약한 '방문판매'가 지난 2년간 침체기를 겪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가 해제된 최근 다시 활기를 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흥보관 상술의 경우 어르신 소비자를 주대상으로 하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방문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비자상담센터 (063-282-9898)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지역 전현직 교수 515명 서거석 지지

청년경제인 100인도 지지선언

전북지역 전현직 대학 교수 515명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해당 교수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이 당면한 기초학력 저하, 불통과 독선의 교육을 해결해낼 후보로 서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12년의 전북교육은 불통과 독선, 4차산업혁명 디지털대전환시대를 대비한 준비 부족이라는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고 혹평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전북교육은 불통과 아집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됐다"며 "그 결과 예산 불이익은 물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수들은 12년 기준 교육체제를 확 바꿀 적임자로 이미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은 청렴한 서거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년 경제인 100인도 서거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공현철 기자

전북교육청, '평화와 만나는 평화길 순례'

전북도교육청이 '평화와 만나는 평화길 순례'에 나선다.

오는 28일 정읍과 고창 일대로 떠나는 이번 순례길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기념한 평화 기행을 통해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화통일교육 교육지원단과 사제동행 평화통일교육동아리 및 통일에 관심 있는 교

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정읍과 고창 일대는 동학농민운동의 대표 유적지들이 접합된 지역으로 이번 평화 기행의 목적지 역시 이와 관련된 곳들이다. 오전에는 동학혁명묘의 탑과 사발통문성지,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등이 있는 정읍 죽산마을을 거쳐 황토현 전적지에서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조광환 소장의 현장 강의를 함께 한다. /공현철 기자



'취업 첫 걸음'… 발달장애인 직업평가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가 발달장애인 취업 도전을 위한 직업평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취업상담을 거친 뒤, 직업 종류와 응대교育, 면접 등 취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참가자 오인서(26岁)씨는 "취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업평가를 통해 능력을 알아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천호성 "전북 학생에 해외수학여행 3번"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도내 모든 학생을 해외로 수학여행을 세 번씩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천 후보는 26일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록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원하는 초등학생 15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의 수행여행비에 50만~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모든 학생을 해외로 세 번 수학여행을 보내겠다"면서 "전북 교육예산 5조원 시대를 열어 최강의 교육복지 정책을 펼치고 학부모 어깨를 가볍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현철 기자

전북대 교육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

전북대학교가 2022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석사학위과정(재교육) 83명으로, 원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유웨이 어플라이(<https://www.uwayapply.com/>)로 접수하면 된다. /양정선 기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접수

전주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달 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8%를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2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유통업과 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정권 기자

친절한 부동산 중개

광고문의 : 063)230-5700
010-3654-5030

공/장/전/문 하나로부동산
대표 빙종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공장 매매 및 임대
- 건물 : 2,684㎡ (용도 : 공장 / 창고사용가능)
- 토지 : 9,414㎡
※ 매매금액: 12억
※ 임대가 보증금 월세 1년분 월세 평당 1만원(약간조정가)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공장 임대
- 건물 : 150평(용도 : 공장 / 창고사용가능)
- 보증금 1500만, 월세 평당 만원 8월 입주가능

010-3651-6304

LBA 재테크 공인중개사
금암동 중앙하이츠A 맞은편 버스정류장 옆.(구.금암A)

매물접수

(전 북 지 역)

상가, 건물, 토지, 임야
원룸, 아파트, 주택 등

— 투자상담 —

매수자
임차인] 대기중

063)232-7114 / 010-3652-7114

일회용품, 하루에 몇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심코 쓰다 버린 일회용품들이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